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의인 제목 : 누가 주님 앞에서 만족을 누리는가?

성경:시편15편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
니이까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
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
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
다 (시15:1-5)

사람은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죽는 순간까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만약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아
니면 그 삶이라도 자신에게는 만족이 되었을 때이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요즘에는
화성인이라고 하는가 보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화성인들은 재미있게 잘 산다.

대부분의 화성인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된 히스토리가 있다. 물론 히
스토리가 요인은 될 수 있어도 필연적이지는 않다.

다만 나름대로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길들여졌을 것이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도록 길들여졌다고 표현하면 불행한 사람은 억
울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렇지만, 불행이 다가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
이 불행에 길들여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개구리가 뜨거워지는
냄비 밖으로 튀어 나가듯이 자신을 삶아 먹으려는 불행의 냄비 밖으

로 뛰쳐나간다. 자신은 결코 불행의 냄비 속에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불가항력적 불행도 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이 불가항력적이지는 않다. 다만 사람마다 한두개 정도 불가항력적인 불행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식구들 중에 한명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직업이, 어떤 사람은 장애가, 어떤 사람은 사고가...)

성경은 불행을 감지하였다면 적극적으로 그 불행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있다.

1 내 아들이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2 네 입의 말로 네가 얻었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3 내 아들이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4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5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6:1-5)

아무튼 남들은 불행스럽게 여겨도 자신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족의 가치나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만족의 가치 기준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에덴동산이다. 그곳은 모든 인류가 소망하는 가치가 있는 곳이다. 다만 사라진 동산이다. 잃어버린 동산이다.

두 번째 기준은 시온산(성산)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에덴동산과 같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에덴동산이 시온산이다.

세 번째 기준은 바빌론이다. 세속도시이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온갖 불행과 탐욕이 넘치는 곳이다.

에덴 동산이 만족의 기준인 사람은 항상 불만족하다. 내가 많이 원하지만 이미 때를 놓치고, 잃어버렸다. 에덴동산이 만족의 기준인 사람들은 흔히 후회하고, 원망이 되고, 분노하게 된다.

시온산이 만족의 기준인 사람은 항상 만족하다. 왜냐면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불행이라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한 단계나 두단계 낮추어 겸손하게 계산하고, 새롭게 도전한다. 다른 사람이 나의 저주를 끊어줄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의 저주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인 나의 만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믿으니, 지금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

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만족의 기초이고, 가장 큰 만족이다. (물론 사랑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주어졌다면 사랑이 생명을 초월하는 만족이 된다.)

6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8:6)

7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8:7)

바빌론이 만족의 기준인 사람은 탐욕적이며 쾌락을 추구한다. 쾌락도 만족의 일부분이나 사랑이 빠진 쾌락은 그 자체가 더러울 뿐이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 원하는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만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없다. 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허망만 얻는다. 병을 얻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고, 탕진하게 되며, 좌초되고 만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중독이 되어서 다

시금 약해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온산을 그 만족으로 삼는 자는 누구인가?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
니이까

첫째로 진실한 사람이다.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모든 불행이나 악한 것에는 거짓이라는 밀가루로 만들어진다. 정직
이 가장 강력한 만족이다. 아무리 불행해도 정직한 사람은 평안을 누
리며, 아무리 부요한 사람이라도 거짓된 사람을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곁에서 만족을 누린다.

둘째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자이다.

3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
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셋째로 망령된 행실을 용납하지 않는 자이다.

4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의 인격이 아니라, 그의 행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적
어도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면 그는 삶이 만족할
것이다.

넷째로 돈을 지혜롭고 선하게 사용하는 자이다.

5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
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
다 (시15:1-5)

이런 사람은 더욱 견고해 지며 만족이 풍성해 질 것이다.

만족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족을 누리는 메카니즘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만족하게 지음 받았다. 쾌락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나 쾌락은 만족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위의 네가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는 최고의 만족을 얻는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는 회개의 기회를 얻을 것이며,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죄사함보다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총을 받는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